에너지분야 '脫 정치화' 필요하다

한 용 수의 돌직구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이 뒤늦게 결정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미 산업부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박일준 2차관이 사실상 경질됐고,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요금 조정안 확정 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두 사람 모두 국내에서 손꼽히는 에너지분야 전문가다. 정 전 사장은 가스공사 사장과 산업부 1차관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에서 한전 사장에 임명됐으나, 전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 들어서도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전기요금 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 첫 에너지차관으로 부임해 에너지 정책을 총괄했던 박 2차관은 공직자로 30여년 일하며 산업·에너지 등 주요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 에너지 전문가다. 전 정부 인사를 몰아내거나,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실패를 떠안은 모양새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했지만,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 등 에너지공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한전은 이번에 지난 1월 요금조정 시 반영하지 못했던 작년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했다. 한전은 2021년 이후 급등한 국제연료비 등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33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6조2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전기판매 수입이 2조6000억원 증가해, 이번 요금인상분으로 1분기 발생한 영업손실의 절반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연료가격은 안정 추세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국제 연료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반영시차 등이 있어, 적자는 앞으로도 더 쌓일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사정도 비슷하다. 가스요금은 올해 1분기 동결 이후 2분이 메가줄(MJ)당 1.04원의 소폭 인상을 결정했다.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이 작년말 8조6000억원에다 올해 1분기에만 3조원이 늘어 11조6000억원에 이른다. 산업부는 당초 가스요금을 올해만 MJ당 2.6원씩 총 4차례 올려야 가스공사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었다.

앞으로는 더 문제다. 정부는 지난 연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 누적 적자·미수금을 현 정부 임기 만료 1년 전인 2026년까지 해소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킬로와트시(kWh)당 51.6원으로 추산했다. 실제로는 올해 1분기 kWh당 13.1원에 이어 2분기 8.0원 인상해 총 21.1원 인상했는데, 정부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3·4분기에 kWh당 30.5원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미 올해 1분기에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요금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인상됐다. 이같은 인상률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분기(41.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한다.

전기요금 인가 절차는 한전 이사회 의결, 전기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 산업부 장관 인가 순이지만, 정부가 관여하면서 이미 정치권의 손을 타게 됐다. 에너지 분야 탈 정치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역대 처음으로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요금을 결정하면서 정치권에 목덜미를 잡힌 상태다. 더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향후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안갯속에 들어간 형국이다. 이제라도 독립적인 에너지요금 조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세종=hys@metroseoul.co.kr

코로나19 이후 취약지 의료봉사 절실

기자 수첩

박 태 홍 〈정치경제부〉

21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게이트볼장에 마련된 의료봉사장.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인 어르신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김순옥(88) 할머니는 몇년 전 육지로 나가 수술한 무릎이 쑤시는 듯 연신 손으로 수술 부위를 문질렀다. 홍금옥(88) 할머니는 양 무릎에 대수술을 해 걷는 것도 편치 않았다. 얼굴이 붉게 피어난 김송희(87) 할머니는 "피부과는 오늘 오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섬의 척박한 환경을 온 몸으로 받아낸 어르신들의 몸은 성한 구석이 없었다. 당 수치를 확인한 한 어르신은 적정 기준 혈당 수치 120보다 훨씬 많은 430이 나오기도 했다. 본인이 당 수치가 높은지, 혈압이 높은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았다.

섬이 많은 인천, 특히 옹진군은 의료취약 지역으로 꼽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월 연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에 따르면 ▲치료가능 사망률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이 전국 평균보다 열악한 지역은 인천, 전라남도, 경상북도 세 곳이었다. 덕적도 보건지소 관계자는 인천 지역에 안개가 짙게 깔리면 응급환자가 생겨도 헬기가 못 떠 해경 측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강화와 예산 확보는 필요불가결하다. 이와 함께 공공의 중장기적 노력과 민간 차원의 의료 봉사도 절실해 보인다. 이번 덕적도 의료봉사는 국제라이온스협회354-F(인천) 지구가 주최하고 인천지역 5개 병원이 후원해 열렸다.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유행세가 사그러들자, 의료봉사도 다시 이어지는 분위기다. 의료봉사 차원에서 심도 있는 진료는 할 수 없겠지만 더 큰 질환을 조기 발견하거나, 만성 질환의 꾸준하고 정기적인 치료를 유도할 수 있어 보인다.

인천 송도 연수김안과에서 의료봉사를 나온 김재찬 안과전문의는 "의료봉사장을 찾는 어르신들은 본인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다. 아직도 의료봉사장을 찾지 않은 주민분들을 더 많이 모시고 나오게 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다시 시작되려는 의료봉사, 생전 처음 본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돕는 의료진과 봉사단원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난다. 이제, 시민의 건강 수호와 봉사 정신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 의료기관, 기업 등의 관심이 절실한 때다.

/pth7285@

오늘의 운세 5월 23일 (음 4월 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그지 못하니 집 나오지 말 것. **48년생** 상속이 예상되는 횡재 운이다. **60년생** 평소에 쌓은 덕이 복을 부른다. **72년생**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행복하다. **84년생** 보름이나 칠성기도로 마음의 안정을.

37년생 고목에 꽃이 피듯 재기의 기회가 온다. **49년생** 먼 길에 교통사고가 염려되니 운행에 주의. **61년생** 헤어진 이성에게 마음을 접는 것이. **73년생** 짙은 화장은 복을 떨군다. **85년생** 현재 만나는 소수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자,

38년생 시작하지 않으니 변하는 것이 없다. **50년생** 하나를 뿌리고 열 개를 수확. **62년생** 노후준비는 이제부터 시작이니 계획을 해서. **74년생** 자신의 행동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 **86년생**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종내는 이별한다.

39년생 막혔던 돈줄이 조금 풀린다. **51년생** 개띠의 도움으로 밀렸던 업무 해결. **63년생** 긴 겨울밤의 정취는 사색의 활력을. **75년생** 등잔 밑이 어두운법이니 살펴보라. **87년생** 의욕이 없을 때는 만남을 다음날로 하는 것이 상책.

40년생 복덕이 구족하니 원 없다. **52년생** 바람 햇살 구름이 나를 도와주니 조상님들 덕이다. **64년생** 인생은 굴곡이 있게 마련이니 실망 말라. **76년생** 겁재운이니 먼저 베풀라. **88년생** 초년에 좋은 운이 너무 일찍 온다면 늙어 고생.

41년생 실수로 머리 아프니 현명하게 조치. **53년생** 기분전환이 필요하니 부부 동반하여 여행을 가 보도록. **65년생** 시기를 놓치지 말고 도전. **77년생**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89년생** 곡각살이 끼었으니 외출할 때 운전은 정말조심.

42년생 재물운이 원만하다. **54년생** 승진에 빠지어도 초조해하지 말고 의연히 대하라. **66년생** 친구 잃는 운세이니 돈거래 유의. **78년생** 이성간 조건 없는 교제가 있어서는 안 되니 신중히. **90년생** 명예에 흉액이 있으니 마음이 혼란.

43년생 실적이 높아지나 공을 과시하지말 것. **55년생** 기술에서 협조하니 지혜가 생긴다. **67년생** 빚은 사람을 살리는 긍정의 에너지. **79년생** 우는 아이가 젖을 먹지만 징징대지는 말 것. **91년생**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실물수가 따른다.

44년생 집안일을 미루려도 해야 할 일이라면 밝게 하고 받아들여라. **56년생** 운이 상승세니 하던 주식을 살펴보라. **68년생** 인연이 오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80년생** 외국어 공부를 꼭 시작하라. **92년생**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45년생 임원승진의 기회가 오니 힘낼 것. **57년생** 공과 사의 선택 갈림길에서 갈등이 생긴다. **69년생** 직장에서 위아래가 불화하니 좌불안석이다. **81년생** 배우자의심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 **93년생** 손재수이니 돈을 과시하지 마라.

46년생 이웃사촌을 소중히. **58년생** 실수를 만회하려다 시간만 낭비. **70년생** 중이 절이 싫으면 분란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 **82년생** 떠난 자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말자. **94년생** 여기저기 투자한 것이 오히려 빚으로 남는다.

47년생 과거의 경력으로 재기의 운이오니 고맙다. **59년생** 차를 바꾸는 것은 하반기로. **71년생** 고생한 보람이 온다. **83년생** 주위 사람과 가능한 대립을 피하고 다투지 마라. **95년생** 조직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만이 성사가 아닌데.

김상회의 四季

마음을 아십니까?

마음만큼 모르겠는 것이 없다. 내 마음이니 내가 잘 알 것 같은데도 갈팡질팡 혼란한 것이다. 마음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 노력은 불교가 최고이지 아닐까 싶다. 불교 삼장 중의 하나인 논서로서 남방 상좌부불교에서는 '아비담마'를 으뜸으로 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의 구조를 세세하게 해체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 이십년 전에 부처님의 초기가르침이라고 알려진 '니까야' 경전이 차례차례 번역되어 소개되자 한국의 불자들은 열광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수행전통을 이끌어오며 실제 수행을 통해서도 마음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매우 분석적이고 원인적인 증험을 해오고 있었던 바, 불교 수행의 정수라 일러지는 위빠사나수행법이 소개되자 마음수행의 이론과 실제가 서로 들어맞음을 드러내어 주고 있다. 굳이 수행적 관점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실체를 알기가 쉽지 않다. 가장 기초적인 숫자인 1, 2, 3, 4를 배우고 알아서 고차원의 방정식과 미분 적분 계산을 하여 여러 복잡한 응용을 해나가듯 마음의 실체를 알아 그 변덕스럽고 미친 원숭이처럼 날뛰는 마음을 조복 받아 현재의 괴로움과 미래 그리고 내생의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신 이가 석가모니시다.

그 마음을 아는 이들이야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들 아니겠는가. 모든 성인들이 바로 그러한 경지를 바로 알고 체득한 분들인 것이다. 요즘도 종종 보게 되는 "도를 아십니까?" 하고 다가오는 모 종교인들에게 필자는 묻고 싶다. "마음을 아십니까?" 라고. 마음을 아는 것이 도를 아는 것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세상의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명성과 악명 기쁨과 슬픔의 여덟 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임을.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 한 힘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2				8		
3			9		6			5
	7						2	
				3				
	2	4				3	7	
				7				
	3						8	
4			2		7			9
		5				6		

	2	3				5	7	
	6		7	8	4		2	
				9				
	9						1	
				1				
	5		9	3	8		6	
	1	7				8	9	

정답

7	4	6	8	1	3	5	2	9
9	3	5	7	6	4	8	1	4
2	8	1	4	9	5	7	6	3
3	5	4	1	2	9	6	7	8
1	6	7	3	4	8	1	9	5
5	2	9	6	7	1	4	3	8
8	7	3	9	5	2	1	4	6
4	1	2	5	8	6	3	9	7
6	9	8	3	5	7	2	1	4
7	4	2	8	1	6	9	3	5
2	5	4	9	3	8	7	6	1
3	1	7	6	4	5	8	9	2
9	8	6	2	7	1	4	5	3

3	6	8	1	4	7	9	5	2
5	3	7	6	9	2	8	1	4
2	9	1	8	5	4	6	7	3
4	2	6	7	1	3	5	8	9
7	8	9	5	2	6	1	4	3
1	3	4	9	8	5	7	2	6
6	5	2	3	7	1	4	9	8
8	7	3	4	6	9	2	1	5
9	4	1	2	5	8	6	3	7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9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9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